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실제로 7장 1절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저희 중에서”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 그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이것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너희는 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이것이 세 번째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들: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고,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되겠으며, 너희는 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라.

그리고는 이것이 7장 1절에 이르게 하는데,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가졌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즉 세상에 있는 더럽히는 것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요한은 세상을 정의하기를 (요한일서 2: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에 의해 지배되거나 다스림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의 육신적 욕망을 따르고, 당신의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려는 것은 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당신의 육신은 항상 점점 더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유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케 하려고 애쓰는데 그들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많은 남자들이 포르노에 흥분 빠져 그들의 아내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인터넷에 나오는 포르노를 보고 흥분하고 스릴을 갖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아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깨어집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이런 행동은 아내에게 모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자의 벗은 모습을 보는 것으로 흥분되어진다는 것은 아내에 대한 모욕입니다. 당신이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당신은 공상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혼은 파괴됩니다. 현실은 결코 공상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점들의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공상의 세계에서 삽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공상처럼 멋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기대이지 실체는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아주 맛있어 보이지만 막상 한 입 먹으면 거기에 아무 것도 없는 솜사탕과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비어있습니다. 환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아들로써 나는 거룩하시고, 순전하시며,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처럼 행해야 합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를 향한 이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라고

또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저희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오늘날 크리스천 세계의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 신지에 대한 올바른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사람들은 자신을 들어올리면서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내려놓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 정도만큼 크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남자인데, 그는 말하기를, 내가 생각하거든 하나님은 아마도 나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뿔뿔으로 하늘을 재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뿔이란 엄지에서 새끼손가락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은 단지 9 인치 정도 넓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모든 것들! 이사야가 이사야서 4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뿔뿔으로 하늘을 재셨다고 하셨을 때,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뿔뿔으로 이 전 우주를 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큼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는 한 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람들의 수준으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셔서, 그의 뿔뿔으로 하늘을 재신 것과 같이 손바닥으로 바다 물을 측량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손바닥에 모든 바다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려하고 또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 “위층에 계시는 사람” 또는 “하늘에 계시는 큰 아빠” 정도로 여깁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은,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한 경솔한 언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을 대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말하기를, **2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바울은 소수의 다른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실한 사역자였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도 또한 바울과 같이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의 인도아래 많은 우리들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했을 때, 모세는 이 문제들을 해결키 위해 주님 앞에 다 모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이 다 모였을 때 반란하는 두 지도자인 다단과 아비람이 나타나지 않자 사람을 보내어 이곳에 오라고 말했습니다. 심부름꾼이 돌아와서는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는데 우리는 네게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16:15절), 나는 너희들에게서 하나도 취하지 않았고 나는 단지 여기서 너희를 섬기고 인도키 위함이었노라. 나는 너희에게서 아무 것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에, 그는 말하기를 (사무엘상 12:3절), 이 날에 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원하노니 내가 어느 누구에게서 아무 것도 취하지 않았음이라. 나는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내 직분을 사용하지 않았고 단지 섬겼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않았고, 아무도 타락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서신의 앞부분인 4장에서 바울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궤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고 했습니다. 나는 속이지 아니하였고 말씀이나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았노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몇 주 후에 공부할 11장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로부터 아무 것도 받지 않았고, 나는 단지 거기서 너희들을 돌보고, 섬기려 했었노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들의 회의에서 가르칠 때 내가 애써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는, “목사”라는 단어는 종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거기서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에게서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절대로 빚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으로부터 상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12장 14절에서, 보라 이제 세 번째 고린도에 있는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다시 갈 계획을 하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노니 이는,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 나는 너희의 물질이나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구하노라! 왜냐하면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자녀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역은 양떼들에게서 빼앗아 자기 자신을 부유하게 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적 도움을 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너무나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음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만일 이 달에 당신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훌륭한 선교를 삭감하여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이 파산하는 것으로부터 막기 위해 오전(誤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산하지도 아니하시고, 가난하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바치는 것은 특권이지 결코 억지로나 강제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고 했으며, 우리는 우리의 사역에 진실하였다고 했습니다.

3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얽잡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서 아무 것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나는 너희를 낮추려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 살고 또 너희와 함께 죽을 준비가 되었노라. 나의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나의 마음은 너희를 위함이라! 나는 너희를 위해 살고, 너희를 위해 서 죽을 것이라!

4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나는 너희에 대해 자랑을 하며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좋은 사람들이라.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비록 내가 많은 문제들과 시련들을 겪었지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사역의 열매들을 인하여 나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도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서 하신 일들에 대해 말하기를 기뻐하고 자랑하노라. 그리고 나는 참 많은 위로를 받았노라.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사실로서 위로를 받았노라.

5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무거운 편지였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에 대해 바울에게 알려졌던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그들이 하고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 책망하는 편지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로잡아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혹한 면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써 놓고 (아! 내가 저들에 대해 너무 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좀 우려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우울한 성격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당신이 어떤 일을 해 놓고는, 혹시 잘못 말하지는 않았나 또는 당신이 말해야 할 것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몇 주간 동안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를 했나? 왜 내가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을 것을, 등 이러한 생각으로 괴롭게 보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어떻게 그의 편지를 받아드릴 것인지에 대해 몰랐으므로 염려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고, 그는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랑은 오해받습니다. 그러나 성경말씀에는,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친구에 의해 상처받는 것이 낫습니다.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친구로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다루었어야 했던 일들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릴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말한 후에 그는 걱정을 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의 편지를 주고 말하기를 그의 편지를 그들에게 전하여 주고 그들에게 그것을 읽어주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였는지 그에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떠났고 바울은 그의 편지를 썼던 곳인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로 갔습니다. 2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역사하심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으되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그의 심령이 편치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통신 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으므로 지금처럼 전화로 디도에게 연락하여 어떠한지를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려 가운데 몇 주고 몇 달을 지내야 했습니다. 바울이 드르아에 있었을 때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그의 심령이 매우 편치 못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을 때 고린도로부터의 소식을 몹시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갔고, 그들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했어야

하는 말들에 대해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으며 받아들였는지를 모르므로 내가 마음이 상하였다고 말했습니다.

6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는 항상 우리가 최고의 성인으로 승격시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대단한 능력으로 사용되었던 이러한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성격의 결함으로 인해 우리 자신을 실격시키는 것은 적의 계략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실 수 없어. 아! 나도 바울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일 내가 바울 같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었을텐데, 또는 엘리야나, 이러한 최고의 성인들 같았으면, 하면서 자신을 항상 실격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실격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이 느리고 더듬거립니다.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도 자신을 실격시키려고 하면서, 주님! 나는 단지 어린아이입니다. 그들은 결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 대신에 우리의 결함을 보고 있기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자신을 실격시키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당신을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당신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웠고, 낙담했으며, 우울했습니다. 그는 메게도냐에서 그가 경험했던 우울증에 대해 말합니다. 두려움이 있었고, 밖으로는 다름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있었고, 나는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낙심된 자들과 우울한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었을 때 드디어 디도가 왔습니다. 디도가 가지고 온 좋은 소식에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7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디도는 나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그를 영접했으며, 너희들이 얼마나 그를 잘 대접해 주었는지에 대해 말했노라. 너희들과 디도 사이에 맺어진 결속은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노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너희의 사모함과**, 그것은 너희들이 첫 번째 서신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즉 그곳에 있었던 문제들을 바로잡으려는 너희의 사모함을 가리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주님과, 주님의 것들,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함이다.

애통함과,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들과 그것들이 진전되도록 허락하였던 것에 대해 애통해 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함이란 내가 어떻게 실패했음을 깨달을 때에 오는 애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애통해 하고,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애통해 합니다. 나는 나의 죄에 대해 애통해 하고, 나의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 애통해 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반항하는 대신에 애통하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데는 물론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매우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것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틀렸다고 지적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매우 화가 나서 우리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에 대한 교정을 받아드리면서 애통해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교훈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들이 어떻게 애통해 하였는지를 말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됨이 나를 위로했도다.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8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말한 후에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디도에게서 너희가 그것을 받았고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후회하지 않노라. 당신도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인데, 무슨 일을 해놓고는 후회를 했는데 결국은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앎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잘못된 것을 애통해 하면서 그것들을 고쳤도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애통함이요, 너희들은 그것들을 바로 정정하였도다.

9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단지 잘못하였고 또 죄 지은 것만 슬퍼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슬픔이 너희를 변화하게 만든 것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 내가 잘못하여 너무나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곧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감옥의 죄수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한다면 아마도 99%의 사람들이, 오! 정말로 미안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조사해보면 그들은 그들이 그것을 한 것에 대해 정말로 미안해하지 않고 그들은 잡힌 것에 대해 애통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슬퍼함으로 회개하기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슬픔이 있습니다.

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너희로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살아 왔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전혀 배려하지도 아니하였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거칠고, 악하고, 사악하였는지에 대해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마음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며 당신에게 당신 자신에 대해 진실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의 제자들에게 ‘네 자신을 알라’ 고 했지만, 진실로 자신을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으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피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나이다. 이와 같은 지식이 내게 너무 경이롭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지식입니까?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다윗은, 나는 내 자신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살펴보셨고, 나를 아십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모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기 시작했을 때, 다윗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보신 것같이 그 자신을 보았으므로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당신을 회개하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그것에 대해 죄 사함을 얻게 하며,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새 삶을 가져다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들은 새롭게 되었으며 당신은 이 새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르는 것이니라.** 세상에는 근심이 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어리석은 일을 하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이 다치고 부상을 당합니다.

나는 이번 주에 여러 번 음주 운전 기록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 사고를 냈고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사람을 오늘 밤 이곳에 데리고 나온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질문하기를, 당신은 술에 취해 가지고 운전을 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그는 틀림없이 그는, 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는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 괴로워하고 비통해하며 고뇌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번 음주 운전으로 체포를 당한 경력을 갖고 있었으며, 그는 매번 체포를 당했을 때마다 많은 벌금을 냈어야 했고, 운전 면허증을 잠시 동안 박탈당했으며 아마도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또다시 사고를 냈다면 변화가 없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근심이며 이것은 사망으로 이르게 합니다.

11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려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썼던 문제들은, 먼저 너희 자신의 삶과 너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을 청산하게 하였도다.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은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 그러한 죄를 우리가 허락하였던 것을 깨달으면서 분개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그러한 죄악을 묵인했다니! 그래서 너희는 그러한 악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분개하게 되었도다. 그 다음에 그것은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였도다. 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두려움이,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모함이 있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열성이 있었도다!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에 대해 행동을 취했도다. 그리고 벌한 것, 즉 죄에 대하여 보복한 것이라. 너희는 행동을 취하였고, 그리하여 너희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였느니라. 너희는 옳은 일들을 하였도다.

12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그것을 쓴 것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생각하며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영적 번영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알기 원함이었도다. 왜냐하면 만일 그곳에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어지려면 거기엔 청결함이 있어야하며 죄를 제거하려는 교회에서의 청결 운동이 있어야 함을 내가 알기 때문이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스며든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 가운데 그냥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해 썼을 때 그들은 그 누룩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13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우리는 너희의 위로 안에서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디도의 기쁨보다도 더욱 많이 기뻐한 것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디도가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그를 보는 것으로 참으로 더욱 기뻐하였도다. 나는 디도가 온 것과, 그가 너희들을 보는 관점과 또 그가 너희에게 반응을 보인 것으로 인해 너무나 위로를 받았도다.

14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다른 말로, 너희들은 기대했던 것과 같았도다! 내가 디도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며, 얼마나 훌륭한 교회임을 말하였는데, 너희들이 그것에 맞는 생활을 하였도다. 나는 너희들을 자랑스러이 여기노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에 관하여 자랑하였다 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도다. 너희들은 통과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15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그의 사랑이 너희를 향하여 더욱 풍성해 졌느니라.) 그래서 디도의 방문은 그의 생각에는 아주 긍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디도를 영접한 것이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 것이 디도의 심정을 사랑으로 풍성하게 했도다.

16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이것은 연고약과 같은 것입니다. 상처가 조성되었었습니다.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너희는 바르게 반응했으며, 문제들을 잘 처리하였고 다시금 잘 되어가고 있도다. 우리의 마음이 격려를 받았고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는 너희들이 우리의 첫 번째 편지에 반응한 것에 기뻐하노라. 올바르게 처리 되었어야 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잘 처리하였도다.

다음 주에 공부할 8장을 미리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일요일 저녁에 성경 속으로 우리의 여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기도문은 번역 안했습니다.